

IgA 신증에서 Oxford 분류에 대한 타당도 연구 : 단일 센터 연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신장내과¹,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병리과², 홍 내과³

서미선¹, 이호영³, 이은빈¹, 권순효¹, 전진석¹, 노현진¹, 한동철¹, 진소영²

Validation Study of Oxford Classification of IgA Nephropathy: Single Center Experience

Mi Seon Seo¹, Ho Young Lee³, Eun Bin Lee¹, Soon Hyo Kwon¹
Jin Seok Jeon¹, Hyun jin Noh¹, Dong Cheol Han¹, So Young Jin²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¹ Soon Chun Hyang University Hospital,
Department of Pathology² Soon Chun Hyang University Hospital,
Hong Medical Clinic³

배 경: Oxford classification 은 최근에 IgA 신증의 조직학적 예후결정을 향상시키고자 만들어진 새로운 진단시스템이다. 예후에 예측에 대한 각자의 인자들은 한국인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져야 한다.

방 법: 순천향대학교 신장내과에서 조직검사를 통하여 IgA 신증을 진단받은 환자 93명을 대상으로 하여 Oxford classification 으로 평가하였으며, 신장기능의 감소에 대한 예측인자에 대하여 각각의 항목을 평가하였다. 최소 10개 이상의 사구체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조직검사후 본원에서 치료한 환자들을 포함하였다. 당뇨 콩팥병과 다른 사구체 질환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하였다.

결 과: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36.24 ± 12.79 세 이었으며, 조직 검사 후 추적기간은 평균 70.91 ± 54.02 개월이었다. 24시간 단백뇨는 범위는 1.10 [0.47-1.99] g 이었다. Oxford Classification 기준으로 M1 lesion은 59%, E1 lesion은 28%, S1 lesion은 74%였으며, T1/T2 lesion 은 각각 21%/12% 이었다. 다변량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신기능이 감소되는 것을 예측하는 인자로서 E1 lesion ($p=0.007$) 과 T1이상 ($p=0.006$)의 세뇨관 손상은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M lesion과 S lesion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이지 못하였다.

결 론: Oxford classification 의 적용에서 조직학적 변수에서 신기능의 감소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서 E lesion과 T lesion 을 확인할 수 있었다.

Key Words: IgA 신증, Oxford 분류
IgA Nephropathy, Oxford Classification